

한 국 사

[강평 및 해설 : 김석훈 교수]

< 총 평 >

■ 서울시 7급 추가 한국사 시험 문제는 같은 날 치러진 9급 시험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었다. 다소 까다로웠던 문제는 5번 문제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해결을 하였겠으나 타 수험생들은 다소 생소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13번 문제에서 노비의 역할을 물었는데 오히려 공부를 한 수험생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여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평이한 문제들뿐이라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출제 내용 분석 : 다음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문제 기준

* 최상(90-100) / * 상(80-90) / * 중(60-80) / * 하(60점 이하)

문항	난이도	주제
01	중	동학농민운동
02	상	일제 강점기
03	중	왜변 및 왜란
04	하	고려의 토지제도
05	최상	조선 시대의 회화
06	중	고려 말기 왜구의 침략
07	중	해방 직후의 정세
08	하	신라에 대한 설명
09	중	헌법 개정
10	중	고려의 대외관계
11	상	4. 19혁명
12	중	숙종 대의 한국정치
13	상	조선 시대의 노비제도
14	하	이이
15	중	조선 후기의 실학자(정약용)
16	하	박은식
17	중	국권 피탈 과정
18	하	수나라의 2차 침략(을지문덕)
19	하	발해의 상황
20	중	공민왕의 업적

■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루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예비 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문항 및 자세한 해설은 김석훈 한국사 카페의 해설지, 이그점 공무원학원의 해설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 간절함, 진심, 공무원 한국사 김석훈 선생

01.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심문자 : 작년(1894) 3월 고부 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전봉준 : 그때 고부 군수(조병갑)의 수탈이 심하여 의거하였다.

심문자 :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 하였느냐?

전봉준 : 고부 민란 조사 책임자 이용태가 내려와 의거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모두를 동학도로 통칭하고, 그 집을 불태우며 체포하고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심문자 : **㉡전주 화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나?

전봉준 :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했으니**,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전봉준 공초」(발췌요약)-

<보기 2>

ㄱ. ㉠: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하였다.

ㄴ. ㉡: 정부와 정치를 개혁할 것을 합의하였다.

ㄷ. ㉢: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ㄹ. ㉣: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② | 동학농민운동

㉠ 전주성 점령 이후 관군과 동학농민군은 폐정개혁안 실천에 합의한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를 일으켰으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대패하였다.

【오답풀이】

㉡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접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한 것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인 2차 봉기 때이다.

㉣ 을미사변이 벌어진 것은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듬해인 1895년이다.

02.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일본은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1910. 8. 22.)

- ①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 ②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
- ③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 ④ 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정답 ① | 일제 식민통치시기의 변화(1910년대)

- ②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일본은 한반도를 조선이라 호칭했다.
- ③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3·1 운동 이전까지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 헌병 경찰은 1910년에 제정된 범죄즉결령에 따라 한국인의 범죄를 법적인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오답풀이】

- ①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이 아닌 조선총독부에 의해 무단 통치를 시행하였다.

03. <보기>의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가) 왜인들이 세경선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 (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의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략하였다.

- ① 정여립 모반사건이 일어나 많은 동인이 처형당했다.
- ② 4~5천 명의 왜인들이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 ③ 도원수 강홍립이 거느리는 원군을 명에 파견하였다.
- ④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편찬하였다.

정답 ① | 왜변, 왜란

- (가) 을묘왜변이 일어난 것은 1555년(명종 10)이다.
- (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략한 것은 1592년(선조 25)이다.

- ① 1589년(선조 22)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나 1000여 명에 달하는 동인들이 죽거나 귀양을 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오답풀이】

- ② 삼포왜란이 일어난 것은 1510년(중종 5)이다.
- ③ 도원수 강홍립이 이끈 원군을 명에 파견한 것은 1618년(광해군 10)이다.
- ④ 역관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편찬한 것은 1527년(중종 22)이다.

04. <보기>는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A)를 주어 자손에게 상속하게 하였다.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B)를 주고, 직업 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C)를 지급하였다.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유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을 지급하였다. 한편 왕실에는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D)를 지급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는 (㉡)을 지급하였고, 사원에는 (E)를 지급하였다.

㉠

㉡

- ① 구분전 공해전
- ② 민전 내장전
- ③ 군인전 공해전
- ④ 한인전 내장전

정답 ① | 전시과의 종류

- (A)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주어 자손에게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토지는 공음전이다.
- (B)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준 토지는 한인전이다.
- (C) 직업군인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는 군인전이다.
- (D)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는 내장전이다.
- (E) 사원에 지급한 토지는 사원전이다.
- ㉠은 하급 관료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토지인 구분전이다.
- ㉡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경비 마련을 위해 지급한 토지인 공해전이다.

05. <보기>의 그림들의 제작시기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궐도」
- ㄴ. 안견의 「몽유도원도」
- ㄷ. 장승업의 「삼인문년도」
- ㄹ. 정선의 「금강전도」

- ① ㄱ-ㄴ-ㄷ-ㄹ
- ② ㄴ-ㄷ-ㄹ-ㄱ
- ③ ㄴ-ㄹ-ㄱ-ㄷ
- ④ ㄹ-ㄴ-ㄱ-ㄷ

정답 ③ | 조선 후기의 회화

- ㄱ.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으로 순조 시절인 1826년(순조 26)에서 1830년(순조 30) 사이에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 ㄴ. 「몽유도원도」는 조선 전기의 화가 안견이 1447년(세종 29)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내용을 듣고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다.
 - ㄷ. 「삼인문년도」는 19세기의 화원 장승업의 그림으로 장승업이 48세 되던 해인 1890년(고종 27) 전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 ㄹ. 「금강전도」는 18세기의 화가 정선의 그림으로 정선이 59세 되던 해인 1734년(영조 10)에 그려졌다.
- 이를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③ ㄴ→ㄹ→ㄱ→ㄷ이다.

06. 고려 말기의 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무장들이 명성과 세력을 얻었다.
- ② 이들의 상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에서 화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 ③ 연해지방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 ④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반도를 침입하였다.

정답 ④ | 고려 말 왜구의 침입

- ①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신흥 무장 세력이 성장하였다.
- ②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최무선은 화포를 개발하여 실전에 투입하였다.
- ③ 왜구는 연안지방은 물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고 수도인 개경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오답풀이】

- ④ 고려 말인 14세기의 일본은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 대립하던 난보쿠초[南北趙]의 혼란기였다. 고려를 침입한 왜구는 막부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난 남조 지역의 다이묘들이나 해적 세력들이었다.

07. <보기>는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가) 미 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 (나) 서울의 혜화동에서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 (다)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연설했다.
- (라) 미 군정은 좌·우 합작 위원회와 한민당을 주축으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를 구성했다.
- (마)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다.

- ① (가)-(나)-(다)-(라)-(마) ② (가)-(라)-(마)-(나)-(다)
- ③ (다)-(가)-(라)-(마)-(나) ④ (마)-(가)-(다)-(라)-(나)

정답 ③ | 해방 이후의 정세

- (가)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1946년 10월, (나) 여운형이 암살된 것은 1947년 7월, (다)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연설은 1946년 6월, (라) 미 군정이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1946년 12월, (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된 것은 1947년 5월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③ (다)-(가)-(라)-(마)-(나)이다.

08.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사의 법호는 무염으로 달마대사의 10대 법손이 된다. (……) 고조부와 증조부는 모두 조정에서는 재상, 나가서는 장수를 지내 집집에 널리 알려졌다. 아버지는 범청으로 ㉠

득난(得難)이 되었다.

- ① 갈문왕이라고 불리는 귀족이 있었다.
- ② 대귀족으로 진씨, 해씨 등 8개 성씨가 있었다.
- ③ 귀족들이 정사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수상을 선출했다.
- ④ 최고 귀족인 왕족과 왕비족은 고추가로 불렸다.

정답 ① | 고대의 신분제도

- ① 득난(得難) 얻기 어려운 신분이라는 뜻으로 신라 6두품의 별칭이다.
- ① 신라에는 갈문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진골 중에서도 왕의 아버지나 동생, 외조부, 여왕의 남편 등에게 봉해지던 작위였다. 갈문왕 제도는 왕권을 제약하는 구실을 하였으므로 태종무열왕에 의해 폐지되었다.

【오답풀이】

- ② 진씨, 해씨 등 8개 성씨의 대귀족들이 있었던 나라는 백제이다.
- ③ 귀족들이 정사암에 모여 수상을 선출한 나라는 백제이다.
- ④ 고추가는 고구려의 제도로 왕족인 계루부의 대가들과 왕비족인 절노부 및 전(前)왕족인 소노부의 적통대인에게 봉해지던 작위이다.

09. <보기>에 제시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 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하였다.
- ㄷ.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 ㄹ.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ㄱ-ㄹ
- ③ ㄷ-ㄹ-ㄴ-ㄱ ④ ㄹ-ㄷ-ㄴ-ㄱ

정답 ③ | 헌법 개정 순서

- ㄱ.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를 5년으로 정한 것은 1987년 9차 개헌 때이다.
 - 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7년으로 정한 것은 1980년 8차 개헌 때이다.
 - ㄷ.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를 4년으로 정한 것은 1952년 1차 개헌 때이다.
 - ㄹ.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것은 1972년 7차 개헌 때이다.
-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③ ㄷ-ㄹ-ㄴ-ㄱ이다.

10. <보기>의 대외관계에 관한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강감찬이 거란군을 맞아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다.
 ㄴ.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9성을 개척했다.
 ㄷ.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영토로 편입시켰다.
 ㄹ.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ㄱ-ㄴ-ㄹ ④ ㄹ-ㄴ-ㄷ-ㄱ

정답 ③ | 고려시대 대외관계 순서
 ㄱ. 강감찬이 거란군을 맞아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거란의 3차 침입 때인 1019년(현종 10)이다.
 ㄴ.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개척한 것은 1107년(예종 2)이다.
 ㄷ.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거란의 1차 침입 때인 993년(성종 12)이다.
 ㄹ.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한 것은 1270년(원종 11)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③ ㄷ-ㄱ-ㄴ-ㄹ이다.

11. <보기>의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촉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10일을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후보가 되었음에도 자유당의 총성파들은 약 40%의 사전투표를 하는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다.

- ① 야당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저항하였다.
 ②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였다.
 ③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④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정답 ② | 4·19 혁명
 <보기>의 부정선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촉발된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이다.
 ② 경찰은 경무대(청와대의 전신)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오답풀이】
 ① 야당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한 것은 유신정부 시절인 1974년이다.
 ③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이 일어난 것은 1979년이다.
 ④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진 것은 1980년이다.

12. 17세기 말 숙종 때 벌어진 정치 집권세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서인은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② ‘경신환국’의 결과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③ 숙종 15년(1689) 후궁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 칭한다.
 ④ 숙종 20년(1694)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되면서 서인(노론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였다.

정답 ② | 환국정치
 ②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집권한 서인은 남인 처벌 문제를 놓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인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인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오답풀이】
 ①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봉당은 남인이다. 남인은 집권 6년 만인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실각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③ 1689년(숙종 15) 후궁인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 윤(昀)을 원자로 정호하는 문제를 놓고 송시열이 사사되는 등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기사환국이라고 한다.
 ④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중전 장씨는 희빈으로 강등되었으며, 서인 가문 출신인 인현왕후 민씨가 복위되면서 서인(노론과 소론)이 집권하였다.

13. 조선시대 노비 제도 및 노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으나, 일정 기간 국역(國役)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② 조선시대 사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양도·상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인이 사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私刑)을 가하는 게 법으로 허용되었다.
 ③ 사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그 수는 솔거노비가 절대 다수였다.
 ④ 외거하는 사노비는 주인으로부터 사경지(私耕地)를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정답 ④ | 조선의 노비제도
 ④ 조선시대의 사노비 중 외거노비는 주인의 땅을 경작하고 남은 수확을 차지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오답풀이】
 ① 조선시대 노비들은 자손 대대로 그 신분이 세습되었으며, 국가의 큰 공을 세울 경우 양인으로 면천되기도 하였다.
 ② 조선시대에는 비록 주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노비를 죽이거나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③ 사노비는 크게 주인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따로 떨어져 사는 외거노비로 나뉘었는데, 그 수는 외거노비가 훨씬 많았다.

14. <보기>의 인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항상 기자가 동쪽으로 온 사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조선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니, (㉠)이(가) 전에 본인이 저술한 「기자실기」를 주었다.

- ①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도록 하였다.
- ②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집필하였다.
- ③ 유성룡, 김성일, 장현광 등 주로 영남학자들에게 그의 학설이 계승되었다.
- ④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인 유기철학을 수립하였다.

정답 ② | 조선의 유학자(이이)
 ㉠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 율곡 이이이다. 이이는 우리 민족의 풍속이 기자로부터 유래하였다는 『기자실기』를 저술하였다.
 ① 이이의 저서로는 『동호문답』, 『성학집요』, 『격몽요결』 등이 있다.
 【오답풀이】
 ① 주세붕이 설립한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도록 한 인물은 이황이다.
 ③ 유성룡, 김성일 등 영남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인물은 이황이다.
 ④ 일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처사로 지내며 독자적인 철학을 수립한 인물은 조식이다.

15.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후기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은(는) 「과농소초」를 집필하여 농업 기술 발달에 기여하였고, (㉢)은(는) 「마과회통」을 저술하여 의학 분야 발달에 기여하였다.

- ① ㉡은(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졌다.
- ② ㉢은(는)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③ ㉡은(는)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무역 등을 주장하였다.
- ④ ㉢은(는) 반계수록을 집필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답 ② |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은 박지원, ㉢은 정약용이다.
 ② 정약용은 기존의 한전제, 정전제, 균전제 등을 비판하며 토지제도 개혁의 이상향으로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①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진 인물은 정약용이다.
 ③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 무역을 주장한 인물은 박제가이다.
 ④ 『반계수록』을 저술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역설한 인물은 윤휴이다.

16.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
- 태백광노(太白狂奴) 또는 무치생(無恥生)이라는 별호를 쓰기도 함
- 상해에서 안중근전을 저술함

- ① ‘훈’과 ‘백’ 중 ‘훈’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윤세복이 만주에 세운 동창학교에 참여하였다.
-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④ 한민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정답 ④ | 박은식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은 구한말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은식(1859~1925)이다.
 ① 박은식은 민족정신으로 ‘조선 훈’을 강조하였다.
 ② 박은식은 1911년 대종교 계열의 윤세복이 만주에 설립한 동창학교에 교사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③ 박은식은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에 추대되었으나 그해 임종하였다.
 【오답풀이】
 ④ 한민애국단은 1931년 김구에 의해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이다.

17. <보기>의 (가), (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太郎), 스티븐스(Stevens)
 (나)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

- ① (가)는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관료였으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 ② (나)의 3개의 철도 모두 최종적으로 일본이 건설했다.
- ③ (가)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각각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했다.
- ④ (나)의 철도 건설에 토지·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한 한국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다.

정답 ③ | 열강의 이권 침탈
 (가)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와 미국인 스티븐스는 1904년 8월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과 외교고문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나) 경인선(1899), 경부선(1905), 경의선(1906) 철도는 대한제국 시기에 완성된 철도이다.
 ① 메가타와 스티븐스는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고용되었으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노선인 경인선 철도는 처음에 미국인의 자본으로 건설되었으나 중간에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일본 자본인 경인철도합자회사가 운영권을 양도받아 1899년에 완공하였다. 경부선과 경의선 또한 일본에 의해서 완공되었다.
 ④ 철도 건설 과정에서 토지와 노동력을 징발당한 한국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오답풀이】
 ③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각각 재정과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것은 제1차 한일협약 이후이다.

18. <보가>의 시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가>
귀신같은 전술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전략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전쟁에서 이겨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떠하겠는가.

- ① 동천왕 때 일어난 전쟁이다.
- ② 살수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 ③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하였다.
- ④ 왜군 3만 명이 원군으로 참전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정답 ② | 고구려-수 전쟁
<보가>의 시는 수나라의 2차 침입 때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쓴 5언 절구시인 ‘여수장우중문시’이다.
② 을지문덕은 살수(청천강)에서 수나라 장수 우중문이 이끈 별동대 30만을 맞아 대승을 거두었다.
【오답풀이】
① 동천왕 때에는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침입하여 환도성이 함락되는 등 큰 위기를 겪었다(242).
③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한 것은 제1차 고구려-당 전쟁이다(645).
④ 왜군 3만 명은 백제 부흥군을 도와 참전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 대패하였다(663).

19. 발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해는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계 유민이 세운 다민족 국가였다.
- ② 제2대 무왕은 산둥지방의 등주(登州)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 ③ 제3대 문왕은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그리고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 ④ 제5대 성왕 때에는 국력이 더욱 강대해져서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정답 ④ | 발해의 역사
① 발해는 698년 동모산 기슭에서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계 유민이 힘을 합쳐 세운 다민족 국가였다.
② 제2대 무왕은 흑수말갈 복속 문제로 당과 갈등을 겪던 중 장문후로 하여금 수군을 거느리고 산둥반도 등주(登州)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③ 제3대 문왕은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다시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오답풀이】
④ 발해가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0대 선왕 때이다.

20. <보가>의 밑줄 친 ‘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가>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난을 피해 개경을 떠났다. 왕이 복주에 이르러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흥건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 ① 자제위를 설치하였다.
- ②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④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공격하였다.

정답 ④ | 공민왕의 업적
<보가>의 밑줄 친 ‘왕’은 공민왕이다.
① 공민왕은 귀족 집안의 자제들 중 용모가 단정한 자들로 자제위를 설치하여 신변을 호위하게 하였다.
②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문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③ 공민왕은 내정간섭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하였다.
【오답풀이】
④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토벌한 것은 창왕 때이다.